

6) 불서(佛書)와 경질(經帙)

(1) 송광사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삼현원찬과문(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三玄圓贊科文)』

이 책은 대각국사 의천이 간행한 고려속장경의 일부로 조판이 원표식(圓表式)으로 되어 있으며, 중형으로 선을 그어서 문장을 연결하였다. 해행의 자수가 일정하지 않으며 판심(板心)에 “보문소과(普門疏科)”라는 서명 약칭과 매수를 새겨 넣었다. 첫머리 제목 다음에 “각화도해운사승록대부수사공전국대사사자사문사효과정(覺化島海雲寺崇祿大夫守司空轉國大師賜紫沙門思孝科定)”이라 하여 저자는 송나라의 승려인 사효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에는 글씨를 쓴 사람의 이름은 없고 다만 “수창오년기묘세고려국대흥왕사봉선조조(壽昌五年己卯歲高麗國大興王寺奉宣彫造)”라고만 되어 있다. 즉 1099년(고려 숙종 4)에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책의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36cm이며 1963년 1월 21일에 보물 제204호로 지정되었다.

(2) 송광사 태승아비달마잡집논소(大乘阿毘達磨雜集論疏)』

이 책은 고려 대각국사가 간행한 고려속장경의 하나이다. 책머리에 “대봉선사사문현범술(大奉先寺沙門玄範述)”이라고 기명되어 있어 저자가 현범임을 알 수 있다. 또 권14의 끝에 “태안구년계유세고려국대흥왕사봉선조조(太安九年癸酉歲高麗國大興王寺奉宣彫造)”와 같은 간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1093년(고려 선종 10)에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아비달마(abhidharma)라는 말은 불교의 경전을 경률론(經律論)으로 구분한 가운데 논부(論部)의 총칭을 말한 것이다. 즉, 부처님의 설법을 조직적으로 설명한 것을 논(論)이라 하는데 이 논을 일명 아비달마라 한다. 이 책의 내용은 부처님이 열반한 것을 기술한 상례법(喪禮法)이다.

책의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36cm이며 1963년 1월 21일에 보물 제205호로 지정되었다.

(3) 송광사 묘법연화경찬술(妙法蓮華經續述)』

이 책은 고려 대각국사가 간행한 고려속장경의 일부이다. 책의 저자는 당의 혜정(慧淨)이며, 이 책을 쓴 사람은 간기에 따르면 남궁요(南宮瑤)임을 알 수 있다. 간기를 보면 “수창원년을해세고려국대흥왕사봉선조조비서성해서동정신남궁요서(壽昌元年乙亥歲高麗國大興王寺奉宣彫造秘書省楷書同正臣南宮瑤書)”라 하였다. 이 책은 1095년(고려 현종 1)에 초간되고, 조선 세조 때 간경도감에서 복간되었다.

묘법연화경은 법화삼부경(法華三部經)의 하나로 이를 줄여서 법화경이라 한다. 이 경은 석존이 이 세상에 나온 본뜻을 말한 경전으로 지금까지 총 28품이 전해지고 있다. 책의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36cm이며 1963년 1월 21일에 보물 제206호로 지정되었다.

(4) 송광사 탐강반야경소개현초(金剛般若經疎開玄鈔)』

이 책 역시 고려속장경의 하나이다. 중국 승려인 공괄이 지은 것을 지운이 다시 추가보충하였는데, 이 내용이 책머리에 “촉군사문공괄술동경천청사사자사문지은후중산보(蜀郡沙門公括述東京天清寺賜紫沙門志蘊後重刪補)”라 기록되어 있다. 또한 권4의 끝에는 다음의 간기가 있다. “수창사년무인세고려국대흥왕사봉선조조(壽昌四年戊寅歲高麗國大興王寺奉宣彫造) 장사랑상의사장동정신왕(將仕郎尙衣查長同正臣王) 정(鼎) 서(書)” 권5의 끝에는 “수창사년무인세고려국대흥왕사봉선조조(壽昌四年戊寅歲高麗國大興王

寺奉宣雕造) 장사랑상의사장동정신(將仕郎尙衣查長同正臣) 이연(李衍) 서(書)” 권6의 끝에는 “수창사년 무인세고려국대흥왕사봉선조조(壽昌四年戊寅歲高麗國大興王寺奉宣雕造) 장사랑사재주부동정신(將仕郎司宰主簿同正臣) 이표(李彪) 서(書) 강화엄경흥왕사통오대사사자사문신상원교감(講華嚴經興王寺通奧大師賜紫沙門臣尙源校勘) 강화엄경불일사자응대사사자사문융관교감(講華嚴經佛日寺慈應大師賜紫沙門融觀校勘) 강화엄경불일사혜소대사사자사문신자현교감(講華嚴經佛日寺慧炤大師賜紫沙門臣滋顯校監) 천순오년 신사세조선국간경도감봉교중수(天順五年辛巳歲朝鮮國刊經都監奉教重修)”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이 책은 1098년에 초간되었고, 1461년(세조 6) 간경도감에서 복간하였다. 특징은 각 권마다 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세조 때 간경도감에서 중간하였다는 기록이다. 이것은 송광사에 보존되고 있는 여러 고려속장경이 모두 간경도감의 복간임을 확증케 한다. 책의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36cm이며 1963년 1월 21일에 보물 제207호로 지정되었다.